



공동체 소식



부활 제4주일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느님, 부활하신 성자의 빛나는 영광을 드러내시고,
성자의 이름으로 나약한 인간을 자유하셨으니, 흩어진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모으시고
하느님의 자녀로 삼으시어,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4월 기도지향

- 캔사스 한인 공동체와 함께 한 사제들을 위해 (박호철 베네딕도, 이승용 마태오, 신성국 노엘, 박진성 프란치스코 신부님)

☞ 교황님 기도 지향 :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으로 위안을 받고 모든 교회가 그들과 연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모성월

교회는 해마다 5월을 성모 성월로 지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이시고 믿는 이들의 어머니이시며 한국 교회의 수호자이신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분에 대한 신심을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시기에 목주기도와 성모 성월 기도를 자주 바칠 것을 권고합니다.

구역회의

- 일시 : 4/26(일) 오후 1시
- 장소 : 회관

성모의 밤

- 일시 : 5/1(금) 오후 7:30
- 장소 : 본당
- 지향 : 캔사스 한인 공동체의 쉬고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맨하턴 공동체 야외미사

- 일시 : 5/9(토) 오전 11시
- 장소 : Tuttle Creek Lake

청장년 남성 신자 피정

- 일시 : 5/15(금) ~16(토) 1박2일
- 장소 : Prairie Star Ranch Retreat Center(Williamsburg)
- ☞ 4/26(일)까지 참가비 30불과 함께 선교분과장(정수한 베드로)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 지난 주일, 평협회의를 통해 사제관 리노베이션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낡고 낯새나는 주방 가구와 비좁은 화장실 공사를 중심으로 견적을 받기로 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이번 주, 4/27(월)부터 4/30(목)까지 ‘중남부 사제모임’이 있습니다. 화/목 평일미사 없습니다.
- 5월 신심미사는, ‘성모의 밤(5/1)’ 미사로 대체합니다.
- ‘성모의 밤(5/1)’ 미사 때, 가정 꽃바구니 봉헌 받습니다. 또한 개인 봉헌 장미는 전례부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침
55	210	178/154	132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정예찬 미카엘 문예나 요안나	안광민 야고보 정수한 베드로
차주	문예나 요안나 정예찬 미카엘	안광민 야고보 문호진 안토니오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명은 안젤라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킴라스티카
차주	김주연 세실리아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금주	박혜정, 정연숙, 장남순
차주	최선윤, 김계숙, 조경희

헌금 봉사자

금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차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4/19	78명	319불	630불
현주용, 이현주, 현교정, 김대성, 차호섭(총 5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의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야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부활 제4주일이며 성소주일입니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시고 우리 구원의 원천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주님의 뒤를 따라 많은 이가 착한 목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불러 주시고 또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림묵상

착한 목자

밤늦도록 헤매고 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기쁨이 넘칩니다. 양들은 목숨을 바쳐 사랑해 주는 착한 목자 곁에 머물습니다. 사랑받은 양들은 언제나 목자를 따릅니다. 우리도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야겠습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요한 10,14-15)
정미연 소화데레사

제 1 독서 : 사도행전 4,8-12

< 예수님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

화 답 송 :



집 짓는 자들 내버렸던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좋으신 분을 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랑이여. 주님 안에 피신함이 훨씬 낫도다. 사람을 믿기보다 훨씬 낫도다. 주님 안에 피신함이 훨씬 낫도다. 수령을 믿기보다 훨씬 낫도다. ◎
- 제 말씀 들으시고 구원을 주셨으니 당신께 감사드리오리다. 집 짓는 자들 내버렸던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어움기에 저희 눈에 놀랍게만 보이나이다.◎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받으소서. 우리는 주님의 전당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당신께서는 저의 하느님 감사하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좋으신 분을 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랑이여.◎

제 2 독서 : 요한 1서<3,1-2>

< 우리는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뵈게 될 것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 음 : 요한 10,11-18 <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



“목숨을 내놓는 사랑”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오늘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목자를 예수님은 착한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착한 목자의 반대말은 ‘나쁜 목자’가 아니라 ‘삿꾼’이라고 표현됩니다. 목자와 삿꾼의 차이는 그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바뀝니다.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양들’이고 삿꾼의 목적은 말 그대로 그가 받게 될 보수입니다.

그렇기에 목자와 삿꾼이란 표현은 특별히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자세로 양들을 대할지, 무엇이 그들의 목적인지 잘 나타냅니다. 교황님도 ‘양의 냄새가 나는 목자’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제들을 향해 양과 함께하라는, 그들과 하나 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무엇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다”는 표현에서 이미 예수님의 드라마를 알고 있는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착한 목자에 대한 언급은 단지 하나의 비유를 넘어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시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착한 목자처럼 양들을 위해, 곧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제1독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건을 요약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죽음에서의 부활. 부활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 요한 복음은 예수님의 입을 빌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

여 나는 다시 목숨을 얻는다.” 이 안에서 죽음과 부활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 1서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통해 얻게 되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현실의 중심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자리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죄 많던 우리에게 하느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가능케 하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들은 모두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알 수 있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모습 역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용어입니다. 각자의 체험에 따라 사랑은 그 모습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막연하게 다가올지도 모르지만 그 이상의 것을 표현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복음에서 들은 ‘목숨을 내놓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이제 우리는 부활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전해주는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합니다.

오늘은 성소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로 불린 것을 기억하는 날이면서 좁은 의미로는 사제, 수도 성소에 대해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도 성소자를 걱정하는 소리가 많아졌습니다. 훌륭한 젊은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투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 가톨릭대학 허규 신부 -



제 3 편 자기 성화

제 5 장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교리를 놓아두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다시 기초를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죽음의 행실에서 돌아서는 회개와 하느님에 대한 믿음,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히브 6,1-3).

【주석】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 수신인들의 자격이 모자라기는 하지만, 필자는 그들이 믿음의 차원에서도 어른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가르침을 펼쳐 보인다(주석 성경, 신약, 867).

죽음의 행실 : “죽은 행실”이라는 뜻이다. 이는 참생명에 부합하지 않는 행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행실을 뜻한다(상동). 갈라 5,19-21에서는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상상 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것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설명】

평생교육(平生敎育)이란 말이 있다. 평생토록 애써 배우고 실천해서 우리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권고하셨다.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태 5,48)

【교회의 가르침】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모두를 당신과 더욱 깊이 결합하도록 부르신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이 은혜를 드러나게 하시려고,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특은이나 이 신비 생활의 특별한 표징들을 주시기도 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2014항).

【어록】

▶ 익어가는 밀밭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이삭은 뽕내며 위를 치켜 보고 서 있지만, 어떤 것은 고개를 숙여서 겸손하게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까이서 보노라면 자랑스럽게 똑바로 선 이삭은 거의 쪽정이인데, 바닥을 향해 고개 숙인 이삭은 무르익은 알갱이 무게로 구부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만과 겸손을 말하는 멋진 광경입니다(피에트랄치나의 성 비오 사제).

▶ 인간은 언제나 하느님의 제자이며,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외양적인 일들 곧, 창조, 인간역사, 이성의 선물, 계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지속적인 활동들을 통하여 몸소 인간의 위대한 교사가 되신다(복자 알베리오네 신부).

▶ 전문가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날이 새롭게 초보자의 자세로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까?(발렌타인 L. 수자)

